

설 연휴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무주군, 특별방역대책 수립·24시간 대응체계 돌입·방역수칙 준수 점검 등 추진

무주군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설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전국적 이동과 가족모임 등이 예상되고 있어 만일에 있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특별방역과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설 명절은 마음만 함께해요'의 메시지로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설 연휴 이전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PC방 등 일반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출입명부 작성으로 방역 지침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방안시설 이용은 사전 예약제와 온라인 성묘 이용을 유도하고, 요양시설은 비대면 면회를 원칙으로 한다.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을 확실히 구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재난상황실과 방역대책반, 선별진료소 등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설 연휴가 방역의 고비인 만큼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를 두면서 안전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재난 폐기물 수거 집중

3월까지 금강 변 4개 지구 부남면-무주읍 구간·단계별 수거

지난해 8월 발생했던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재난 폐기물 수거에 주력해 온 무주군이 오는 3월까지 금강 변 4개 지구(부남면~무주읍)에 대한 구간·단계별 수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억7,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무주읍 잠두지구와 서면지구(1.5km 마실 길 구간), 후도지구(1.0km 학교 가는 길)에 크레인과 인력 등을 투입해 임목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약 400여 톤을 수거할 예정이다.

부남면 대소지구에는 굴삭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임목 및 영농폐기물 70여

톤 가량을 제거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동필 과장은 "이 구간들 중 잠두지구 1.3km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설 명절 이전에 정리를 마무리해 깨끗한 주변 경관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관내 구석구석 쓰레기 수거 사업 추진을 병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귀향객들 또한 쾌적하게 고향을 다녀가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1월까지 재난 폐기물 수거사업에 총 9,400여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생활쓰레기 147톤과 임목폐

기물 890톤 등 총 1,037톤을 수거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해 당시 농경지 및 하천부지에 쌓인 재난 폐기물을 우선 수거했으며 올 1월까지는 하천 제외지(건너편)에 대한 구간별 수거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설 연휴에 대비해 쓰레기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8일에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며 8일부터 10일까지는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포장횟수 기준 준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등)한다.

또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고 적정처리 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홍보 스티커 부착 등)을 벌이는 한편, 체계적인 수거체계를 구축(2월 11일/13일 정상운영, 2월 12일/14일 휴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진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 다중이용시설인 진안고원시장, 공용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전라북도 및 군 담당자, 무진장소방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시설물 운영 현황, 건축물 상태, 토목·전기·가스·소방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건축분야는 시설물 주요 구조부 안전 상태, 전기분야는 전압계 및 전력계의 과부하 및 과전압 상태, 가스분야는 가스차단기 및 경보기 등의 정상작동 상태, 소방분야는 비상구, 계단 등 비상통로 내 물건적치 상태 및 소화시설 확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검 시 마스크 착용을 했으며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2020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평가 결과, 무주군이 전국의 우수 지자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 스마트 대응,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총 43건이 꼽혔으며 이중 무주군 사례를 포함한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무주군 사례는 '영세농 생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건으로 농산물 순회 수거를 위한 마을별 공동수집장을 조성(2020년 12월 말 현재 6개 읍·면 마을에 총 65곳)해 영세농들의 소득증대를 돕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건축물로 등

재되지 못했던 마을회관을 양성화해 재산권 행사를 도모(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조례 개정으로 농업인 편의를 도모한 것과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기한 단축 건은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이 됐다.

무주군청 기획실 박태용 법무규제팀장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게 된 만큼 널리 공유해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기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신규 및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건들을 분야별로 공유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과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5일 백화점 7층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장, 이주영 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롯데백화점(전주점) 지역상생협력사업 MOU' 협약을 체결했다.

장수군-롯데백화점 전주점 '맞손'

지역상생협력사업 MOU 협약 체결... 장수 농특산물 활성화 협력

장수군과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5일 백화점 7층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장, 이주영 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롯데백화점(전주점) 지역상생협력사업 MOU'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추진된 이번 '장수군·롯데백화점 전주점 지역상생협력사업'은 백화점 6층 식당가의 '장수한우명품관' 입점 협의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체결됐으며, 양 기관은 장수군 농특산물 전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식품관에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장수군 농특산물 선물세트 특별 판매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과를 비롯해 오미자주, 오미자 청, 한과, 잡곡, 굽빵이 환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이 판매되며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이날 10일까지 진행된다.

또 오는 5월 초에 개점 예정인 '장수한우명품관 전주점'은 장수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판매되며 이와 함께 장수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장수군 대표 농특산물 전시·판매코너를 운영해 장수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이주영 지점장은 "천혜의 농축산물 생산지인 전북 최고의 청정지역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전주점에서 소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품질 좋은 장수 농특산물을 도시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수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2020년부터 롯데백화점과 인연을 맺고, 수차례의 '장수군 농특산물의 특판전'을 마련해준 이주영 지점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호남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장수군 농특산물 유통의 전방산업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중장기·미래전략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발전 전략과 미래비전을 구상하는 2040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진춘성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국장, 분야별 군 실과 IT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대표 이기현)에서 용역수행방법 및 내용, 일정 등에 대해 다뤘다.

착수보고 후에는 참석자들은 용역수행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등 용역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군의 2040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진안군에 대한 이슈와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안군의 전략방향을 도출하는 전략수립 등의 과제수행과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12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진안군 중장기 및 미래전략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춘성 군수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을 제시하며 "청정진안의 강점을 살려 대도약 기를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내실 있는 용역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상행위, 물품 사재기 지양 등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진안지부(지부장 김진옥) 회원들과 진안군 물가모니터요원이 동참하여 전개한 이번 캠페인은 물가안정 이외에도 원산지표시 이행, 가격표시제 실시, 재래시장 이용 독려 등을 위해 진안고원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 외에도 군은 특별대책반 운영, 성수품 물가를 중점 관리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역상품권인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10% 구매할 인 혜택을 연중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진안군민 모두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5개 농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추진

무주군이 아직 인터넷이 개설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사업비 1억2,000만원(국비 2,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무주읍 서면마을을 비롯해 설천면 보안마을, 적상면 신대마을, 안성면 하이목마을, 부남면 가정마을 등 5개 마을에 오는 7월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 마을의 경우 인터넷 가입자의 부족으로 인해 광역통신망이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인터넷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박승호 팀장은 "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농촌마을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마을을 확대, 발굴해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